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동력 마련

순창군, 합동 화재안전 점검 나서

남원시, 행안부 투자계획평가 '우수' 지역 선정... 160억원 확보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16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행안부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 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89개 인구 감소지역 중 남원시를 포함한 8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해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나 우수지역은 88억원을 추가 배분해 남원시는 총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남원시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상위 20%인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



최경식 남원시장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으며, 남원시는 자체 인구감소 원인분석 결과 직업과 교육문제에 의한 청년인구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교육·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5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남원 인제화당 건립·운영 등 총 6개 기금사업을 발굴했다.

중점사업인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지리산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남원시 특화산업인 화장품 산업 및 스마트팜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융합센터 구축·운영, 인제양성 프로그램운영 및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신규사업인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선정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와 연계한 청년농업인 유입과 스마트팜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산업 집

중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메카를 조성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으로 국내 유일 토종 미꾸리 양식단지를 활용 교육·생산·창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행안부 '고향올라 공모사업'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과 연계하여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결합된 수요맞춤형 복합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출산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 주민들과의 공동 이용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립화원 성격의 '남원 인제화당 건립'은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제양성, 특기생,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지방교부세 삭감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가뭄 중에 단비와도 같다"며 "이번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음껏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저지종 젓소 생축 도입

전달식 갖고 저지종 젓소 1두·동결수정란 30개 지원 받아

임실군이 임실N치즈의 프리미엄화에 치즈산업 발전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저지종 젓소 생축이 보급됐다.

군은 지난 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맛 좋고 영양 높은 저지종 젓소의 원유를 통한 유제품 및 임실N치즈 고급화 추진에 필요한 저지종 젓소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설상회 임실부군수와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지원개발부장, 이창식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전달된 저지종 젓소는 관내 낙농 목장에 입식됐다.

저지종 젓소 전달식은 임실치즈&식품연구소에서 저지종 젓소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과 치즈테마파크 치즈호텔 앞에서 저지종 젓소 전달 행사로 진행됐다.



전달된 저지종 젓소는 수정란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18개월령 암소로 국립축산과학원이 임실치즈농협에 저지종 젓소 수정란 생산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다.

저지종 젓소 보급은 2023년 12월 4일 임실군과 국립축산과학원이 체결한 '국내 낙농 및 유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2024년에는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이날 전달식에 지원받은 저지종 젓소 1두를 포함하여 동결수정란 30개를 지원받았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동결수정란 30개, 저지종 젓소 5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저지종 젓소는 홀스타인 젓소 대비 고단백·고지방 원유를 생산하는 품종으로서 국내 우수 소비 감소, 2026년 무관세 유제품 수입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낙농가에 큰 활력을 줄 전망이다.

앞으로도 낙농산업과 치즈산업 발전을 위하여 임실군과 국립축산과학원, 임실치즈농협, 임실치즈&식품연구소 등은 서로 협력하여 다양한 고품질 치즈 제품 생산 및 기술 협력 연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저지종 젓소 보급을 통해 고품질 유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낙농·유제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행안부·전북자치도와 요양병원 실태 점검·현장 목소리 청취

순창군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6일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순창요양병원에 대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화재 등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라북도 운동목도민안전실장, 열기남 순창부군수를 비롯해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점검 대상인 순창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의사, 간호사 등 95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관리는 물론, 환자 상태별 맞춤형 대피계획 수립하는 등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점검단은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상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주거적인 화재대피 훈련 실시 여부 △욕의 대피장소와 복도 이동 동선의 적정성 △소방·전기 시설의 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울러, 전체 입원환자 286명 중 절반에 가까운 137명이 외상환자인 점을 고려해, 야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지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인권경영 선포식 가져

순창발효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6일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반영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경영을 실현하는 제도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노사 대표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



△차별 금지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와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환경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영농작업 마쳐

임실군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종료에 따라 7개월간의 농업 현장 근무를 마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이 지난 5일 본국으로 출국했다.

3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무단이탈자 발생 없이 농가의 호평 속에 성실히 근무를 마쳤다.

올해로 3년째 운영된 임실군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자치단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농협이 운영 주체로 농가의 수요에 맞게 1일 단위의 단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간 고용에 따른 숙박, 식수 제공 책임이 따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농가의 부담이 덜하다.

군은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1,504 농가에 4,672명의 영농인력이 투입됐다. 당초 고용계획은 5개월이었으나 농가의 호응이 좋아 근로계약을 2개월 연장했다.

근로자의 작업속도도 제고를 위해 성실 근로자 재초청 비율을 높이고 영농작업 투입 전 사전교육과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농가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지은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제공)